

맘과 열정으로 만든 광주産 웹드라마

‘바닐라씨’ 제작 ‘오늘의 주제’
 동명동 등서 이틀에 걸쳐 촬영
 주인공 300명 가까이 지원
 내달초 네이버TV 등에 배포



‘바닐라씨’가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카페에서 웹 드라마 ‘오늘의 주제(酒題)’를 촬영하고 있다.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카페. 15여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어두컴컴한 카페 안 사람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쪽에서는 슬레이트 소리와 컷 소리가 들린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선보이는 등장인물들에게서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웹 드라마 ‘오늘의 주제(酒題)’ 촬영장이다. 광주의 영상 제작 및 콘텐츠제작 기업인 ‘바닐라씨’가 제작하는 ‘오늘의 주제’는 3분~5분짜리 드라마 2편으로 구성된 웹드라마다. ‘오늘의 주제’는 청춘남녀들의 재기 발랄한 솔자리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로 지역을 대표하는 보해양조와 아트상품 브랜드 디자인배틀이 협찬했다. 이번 드라마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에는 전국에서 300명 가까이 응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남녀 주인공 도수하 역의 백현호 배우와 주연우 역의 박소희 배우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며 그밖에 등장하는 조연과 엑스트라 배우들은 광주 출신 일반인들이 참여했다.

“오늘의 주제는 ‘바닐라씨’가 제작하는 두번째 작품이다. “지난해 제작해 공개한 웹 드라마 ‘연애인턴최우선’이 기대보다 인기를 끌었어. 총 6편의 누적 조회 수가 페이스북 북에서 30만을 넘었죠. 유튜브 조회 수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 ‘오늘의 주제’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닐라씨’의 제작 PD 이나건씨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창업발전소 2기 G-Startup 지원하 이번 웹 드라마의 제작비는 약 1000만 원이다.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이 PD는 “사실 웹 드라마를 제작해서 얻는 수익은 거의 없다. 대신 ‘바닐라씨’가 제작한 웹 드라마를 보고 영상콘텐츠나 영상,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

플 등의 제작을 의뢰하는 분들이 있다”며 “보해양조 등의 협찬을 받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바닐라씨’의 임수정 감독은 “청춘들이 힘들게 버티는 시대에 작게나마 공감의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늘의 주제’는 3월 초에 배포되며 ‘바닐라씨’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네이버TV계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단편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으며 웹드라마는 ‘오늘의 주제’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다른 활동을 할 생각이다. 이 PD는 “작년부터 웹드라마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장르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유튜브바 1인 방송의 주역인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해 콘텐츠를 만들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난헌 정덕순 작가 초대전 ‘수목의 시(時)’

화순 다산미술관
 4월 20일까지



▶ ‘그 시절’

화폭 속 풍경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세월을 인 커다란 고목나무 앞에 모여 말뚝박기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표정은 해맑다. 세상을 잊은 듯,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낚시대를 드리우는 이들의 뒷모습은 여유롭다. 수목 담체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먹의 농담과 여백의 미가 어우러진 작품들이다. 화순 다산미술관이 난헌(蘭軒) 정덕순 작가를 초청, 전시회를 갖는다. 오는 4월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수목의 시(時)’다. 수목화의 전통계승과 현대미술 양식의 무한한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는 정작가는 수목화의 현대적인 기법으로 옛 시절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전시 중이다. 정 작가는 현대적인 수목화 작업을 통해 겹겹이 쌓여온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고목나무 등과 그 안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인물들을 다채롭게 그려낸다. 정 작가는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미술대전과 전남도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광주시미술대전 초대 작가며 먹그림, 남목회, 창목회 등 다양한 모임에서 활동 중이다. 난헌 문인화연구실을 운영하며 광주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문인화 강사로도 출강 중이다. 문의 061-371-34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영관 문학기금’ 수혜자 박강산씨 선정

함평 출신 조영관 시인(1957~2008)의 뜻과 삶을 기리고자 제정된 ‘조영관 문학기금’ 2018 수혜자로 박강산 씨가 선정됐다. 수혜자는 ‘차풀부즈’ 박 씨의 소설은 인도의 전통 무언극 카타칼리의 배우 차풀부즈가 한국에 와 이주노동자로 살다 인도로 돌아가 전통 대서시극인 ‘라마야나’를 완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이주노동자의 삶을 우리 사회의 모순구조 안에서 다루는 데서 한 발 나이가

그들이 모국에서 하층계급으로 겪었던 차별과 전통 예술의 부활을 교차시킴으로써 기존 소설들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박 씨는 중앙대 문창과에 재학 중이다. 한편 이 창작기금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2007년 세상을 떠난 시인 조영관의 뜻과 삶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상금 500만원. 수여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손지영·최예니 2인 콘서트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손지영&최예니 2인 콘서트’가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두 사람은 이번 공연에서 다양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1Piano 4Hands’ 편성의 곡과 ‘2Piano 4Hands’ 편성의 곡 뿐 아니라 성악과 피아노, 클라리넷과 피아노 협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했다. 이날 공연에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을 시작으로 볼프의 ‘괴테 가곡’, 베르디의 오페라 ‘팔스타프’ 중 ‘꿈인가 생시인가?’,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리 공’ 중에서 ‘달단인의 춤’ 등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영화 해리포터, 겨울왕국, 인어공주, 캐리비안의 해적 등의 OST를 무대에 올린다. 손지영과 최예니는 전남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친구로 2018의 시작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음악을 표현하고자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손지영은 전남대학교 졸업 후, 오페라 ‘라보엠’ (La Boheme)에서 반주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다수의 독창회에서 협연했다. 최예니는 전남대학교 졸업 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에 진학해 반주 경력을 쌓았다.



손지영 최예니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오진현, 바리톤 조규철, 클라리네트 김세윤, 테너 윤승환이 협연한다. 무료관람. 문의 062-226-203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내달 4일까지 52기 강좌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내달 4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52기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문학, 철학,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 참여 위주로 진행된다. 정규강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에 열린다. 월요일에는 이진 교수가 ‘소설을 읽자-다양한 은유의 세계’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김정우 박사와 명혜영 교수가 각각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 ‘존재란 무엇인가?-새로운 리얼리즘의 물음’을 강연한다.

목요일에는 위상복 전남대 명예교수가 ‘레고의 철학노트-팜스와 ‘자본’을 이야기한다. 월·목·토요일(오후 2시)의 세미강좌에서는 클래식, 영화 등의 강좌가 펼쳐진다. 월요일에는 안철 음악가가 ‘클래식 감상-W. A. 모차르트 시리즈’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목요일과 토요일은 각각 ‘루카미 히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정독과 ‘again 2017 무비 특선’이 진행된다. 토요일(오전 11시) 특별강좌시간에는 명혜영 교수의 ‘일본 원서로 읽는 인문학’이 예정돼 있다.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한정식 아리랑하우스는 2월 14, 15, 16일 휴무입니다. 17일(토) 정상영업합니다.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